

이란 '대미 보복공격' 수위 조절 도발 지속 여부 주목

이란이 미국의 이란 군부실세 살해에 반발해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지만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견상 이란이 군부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역습에 나서며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절제한 흔적들' 이 보인다는 것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이 수위 조절을 한 흔적 중 하나는 우선 공격 지점이다. 이란이 공격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인 아인 알아사드와 에르빌은 미군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많은 미국인 사상자를 내려는 게 이란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온다.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기 1시간여 전에 이라크 총리에게 공격 계획을 구두로 통보했고, 이라크는 미국에 사전 경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이란의 공격 계획을 사실상 미국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서, 미국으로선 피해를 줄일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에 군대가 대피소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보를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잠든 새벽에 공격을 감행한 것은 기지 내에 돌아다니는 인력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고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이 미국을 직접 보복했다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미국에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도발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제공하는 선에서 고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란의 군사작전이 종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앞으로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란은 추가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향후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 100배 잿더미 호주 산불로 코알라 멸종위기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다섯달째 지속된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100배인 600만ha가 잿더미로 변했다.

7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가장 극심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소방당국은 전날 현재 주 전역에서 15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64건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지만, 40도 이상으로 치솟은 기온과 돌풍으로 인해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산불 진화를 위해 예비군 3,000명에 동원 명령을 내렸고, 주민들의 피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코알라, 캥거루 등 동물 약 5억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호주 시드니대 생태학자들은 추산했다. 특히 행동이 느려 번지는 불을 피하기 어려운 코알라가 큰 피해를 봤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코알라 중 30%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서식지 80% 이상을 잃은 호주 코알라가 사실상 '기능적 멸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기능적 멸종 상태는 어떤 종의 개체 수가 너무 줄



▲ 호주 캥거루섬 산불 속에서 코알라를 구조해 나오고 있는 야생동물 구조대원

어 더 이상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코알라 보호단체의 수 애시턴은 "코알라들은 나무 위에서 그대로 불에 탔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생태학자 마크 그레이엄도 산불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코알라는 불의 확산을 피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특히 기름으로 가득한 유칼립투스잎을 먹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불에 약하다."고 말했다.

브라질 '비공식 카니발' 개막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가 카니발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우 시에서는 5일 '비공식 카니발'이 개막했으며, 시내 20여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리우 시의 '비공식 카니발'은 실제 카니발인 2월 25일을 전후한 시기까지 계속되며 적지 않은 관광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카니발' 개막과 동시에 강·절도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강·절도범들은 주로 부부나 연인들을 노려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소셜미디어(SNS)에는 치안 부채를 질타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들을 검거하기는커녕 강·절도

사건이 몇 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말에 열리는 카니발 축제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향연으로 꼽힌다. '삼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우와 최대 도시 상파울루, 아프리카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북동부 사우바도르, 유네스코 지정 세계역사유적지구인 북동부 헤시피·올린다 등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유명하다.

지난해 3월 초에 열린 카니발 축제에는 국내외 관광객 1천만 명이 참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00억 헤알(약 2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나 리우시 당국이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